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악에 대해 승리할 것이며 “영원히” 성도들을 지지하시리라고 간증했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리버티 감옥의 선지자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훌륭한 군사처럼
끝까지 환란을 견딜 것을 다짐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8년 12월 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의 형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통나무 집에 감금되었던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리버티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의 박해로 인해 일어난 거짓 고소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면서 약 4개월이 넘는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회원들은 박해자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미주리 주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선지자와 그의 동반자들은 오랜 기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 성도들의 시련을 크게 걱정했다.

리버티 감옥은 윗방과 사방 4.27미터 크기의 지하 감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들은 지하 감방에 수감되었다. 선지자는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담과 문이 이중으로 된 감옥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밤낮으로 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음식은 제한된 양에 늘 똑같았으며, 불쾌한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고 쥘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할 담요도 부족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배출구가 없어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때때로 우리가 무죄이며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했지만 폭도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¹

감옥의 천정이 너무 낮아서 그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었으며, 수감자 중 하나였던 알렉산더 맥레이는 음식이 “너무나 형편 없고 불결해서 배가 고파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때까지는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²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했던 교회 회원, 머시 필딩 톰슨은 이후 이렇게 기록했다. “간수들이 우리를 감옥 안으로 인도하고 문을 닫은 후의 내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나 어울릴 그 어둡고 음산한 토굴 안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지자 조셉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묶고 풀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선지자가 다른 원인이나 이유도 아닌, 오직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 때문에 그 끔찍한 감옥에 갇힌 것이다.”³

선지자가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에머는 오직 세 번의 면회만 허락 받았다. 그 외의 유일한 대화 수단은 편지였다. 1839년 4월 4일, 선지자는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목요일 밤, 나는 해질 무렵, 이 외로운 감방의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나의 상황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소. 쓸쓸하고 어둡고 더러운 감방의 벽과, 쇠창살과 철거덕거리는 철문 안에서 밤낮으로 간수의 감시를 받으며 지낸 지도 벌써 5개월하고 6일이 된 것 같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글이나 말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혹은 천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오. … 우리는 여호와의 팔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⁴

선지자는 또한 리버티 감옥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도우신다는 그의 신앙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다음 내용 대부분은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1839년 3월 20일자 편지에 있는 내용이며,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간구,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편지의 일부는 이후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및 123편이 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정으로부터 떼어 놓지 못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인해 갇힌 자 되고, 린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의 근절령에 의해 폭정의 권력으로 잡혀서 억류된 여러분의 겸손한 종 조셉 스미스 이세는 동료 수감자이자 사랑하는 형제들인 캘럽 볼드윈, 라이만 화이트, 하이럼 스미스, 알렉산더 맥레이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⁵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흡족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베드로후서 1:5~8 참조)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에게 가해진 부당한 행위와 고압적인 비행과 만행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온갖 악으로 거짓 고소를 당해 투옥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덮을 놓는 악마가 지치지 않고 그러듯이, 밤낮으로 힘센 간수들이 계속 감시하는, 사방의 벽이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의 우정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영이 거룩한 모든 것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9 참조)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사악함과 잔인함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단합시키고 사랑으로 인봉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갇혔다고 여러분께 말할 필요도 없으며,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없이 우리의 집에서 쫓겨났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 미주리 주의 주민들이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평화를 원했다면, 미주리 주에는 오늘날까지 평화와 평온함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성을 모독하는 맹세와 신성 모독에 대한 목격, 술취함과 위선, 모든 방탕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

다. 미주리 주의 주민들이 성도들을 내버려두었다면, 고아와 미망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가 미주리 주에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이것은 재앙의 이야기요,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며, 말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이며,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인간이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무죄하고 유덕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했습니다. 말하기에도 끔찍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8:7 참조)⁶

역경은 잠시일 뿐이며, 잘 견뎌 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할 것이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참으로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며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으로 애가 끓으시겠나이까?

“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스올의 어둡고 캄캄한 영역과 악마를 지배하시며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여! 당신의 손을 뻗으시옵소서. 당신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옵소서. 당신의 장막이 견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숨으신 곳이 더 이상 가리운 바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당신의 애가 끓게 하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이지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뻐하겠나이다. ...

“...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뿐 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⁷ (본 편에 있는 단락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 1~8절에 있음)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악보다 위대하며,
복음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께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무지와 미신, 편협한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파고 들어와, 마치 산에서 억수같이 퍼붓는 비가 급류를 이루어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을 진창과 흙과 더러움으로 넘치게 하여 예전에는 깨끗했던 모든 것을 탁하게 만들며 하나의 거대한 홍수로 흘러드는 것과 같이 종종 이 교회의 번영을 저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홍수를 이겨내면 한동안 홍수의 흙탕물에 휩쓸려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마도 다음 물결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눈처럼 깨끗한 샘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한편 오물과 홍수에 떠밀려 온 나뭇가지와 더러운 쓰레기들은 도중에 냇물 밖으로 밀려나 제거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 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리라. (이 단락 또한 교리와 성약 121편 33절에 있음)

“[주지사인 릴번 더블류] 보그스와 그의 흉악한 일당은 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를 붙들기 위해 강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산골짜기의 급류가 진흙을 내려보내 수정처럼 맑은 시내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그런 후에 그 급류가 시내를 전보다 더 맑게 해 준다 할지라도, 물을 물이 아니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을 뿌려 끌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을 불이 아니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두 똑같이 집요한 술책과 신조를 가진 배신자와 거짓말쟁이, 사제와 강도와 살인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또한 악마의 요새에서 우리의 머리 위로 진흙과 진창과 더러움을 쏟아 부었다고 해서 우리의 대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이 베수비오산, 혹은 에트나산, 혹은 가장 무시무시한 화산의 뜨거운 용암같은 분노를 토해내더라도 ‘몰몬이즘’은 살아날 것입니다. 물, 불,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실재합니다. 몰몬이즘은 진리입니다. 몰몬이즘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는 몰몬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훌륭한 군사처럼 끝까지 환란을 견딜 것을 다짐합니다.

“... 여러분은 이 글을 읽었을 때쯤이면 벽과 족쇄와 문과 빼격거리는 경첩과 무서운 간수와 교도관은 ... 정직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의 권능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알지 못했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

“...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고통을 겪는 자들이요, 복음과 우리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들입니다.”⁸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다. “땅 끝이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 네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고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 손 아래에서 끊임 없이 권고와 권세와 축복을 구하리라. 또 네 백성은 배반자들의 증거로 인하여 결코 돌아서서 너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의 영향력이 너를 고난에, 그리고 빗장과 벽 속에 던질지라도 너는 존귀하게 되리라. 또 잠시 후면 네 의로 말미암아 네 음성은 네 원수 가운데서 사나운 사자보다 더 두렵게 될 것이요, 네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네 곁에 서 있으리라.

“네가 환난 가운데를 지나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네가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협에 처할지라도, 네가 도적 떼 가운데서 위협에 처할지라도, 땅이나 바다에서 위협에 처할지라도, 네가 온갖 거짓 죄명으로 무고 당할지라도, 네 원수가 너를 덮칠지라도, 그들이 네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قم에서 너를 떼어낼지라도, 네



빌라도 앞의 구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원수들이 칼을 빼어 들고 네 아내와 네 자식의 품에서 너를 떼어 내고, 네 큰아들이 비록 여섯 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어도 네 옷자락에 매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지내실 수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칼로 그를 네게서 밀쳐버리고 너를 감옥으로 끌고 가며, 네 원수들이 어린 양의 피에 굶주린 이리같이 네 주위를 배회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고될지라도,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⁹ [이 편의 단락들은 교리와 성약 122편 1~9절에 있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슬픔과 비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 위안을 준다.

미주리 주에서 선지자를 호송하던 사람들이 그가 도주하도록 허락해 준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투옥되어 있던 동안의 느낌을 이렇게 회고했다. “원수들의 손에 잡혀 있는 동안, 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해 크게 염려했지만, …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매우 평온함을 느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결백함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종종 죽음의 문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죽음이 임박해 보이고, 인간이 보기에 나의 죽음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진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형제들과 더불어 구출되리라는 확신을 느꼈다.

“그렇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종종 내 영혼에 위안을 속삭여 준 그 음성은 안심하라고 명하고 구출을 약속해 주었으며,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비록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더라도, 만군의 주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환란의 때에 그분께 부르짖을 때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시편 46:7; 50:15 참조) 이는 내 영혼이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하고 찬양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 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8~9 참조)¹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대한 묘사를 복습한다.(359~360쪽) 본 장을 공부하고 토론할 때, 본 장에 기록된 선지자가 이러한 글을 기록했을 때 처했던 상황에 대해 생각한다. 363쪽 셋째 단락을 복습한다. 리버티 감옥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이러한 진리의 예가 되는가?
- 361쪽에 있는 셋째 단락을 공부한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은 때로 “우리의 영이 거룩한 기억을 자각하도록” 하는가? 어떤 면에서 시련과 박해는 가족과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가?
- 조셉 스미스는 어떤 것도 자신을 형제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361쪽) 이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63쪽 첫째 단락을 읽는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의 역경과 고난이 “잠시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확신시켜 준 내용을 복습한다.(363~364쪽) 우리는 왜 때때로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는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364~366쪽에서 주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공부한다. 시련이 우리에게 경험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구주께서 모든 것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는다.(366~367쪽) 성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었던 때에 대해 생각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에 적절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관련 성구: 빌립보서 3:8~9; 모사이야서 23:21~24; 엘마서 7:11; 36:3

주

1.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갤랜드에게 보낸 편지,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2쪽. 현대화된 구두법
2. 알렉산더 맥레이, *History of the Church*, 3:257에서 인용; 알렉산더 맥레이가 *Deseret News*의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1854년 10월 9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Deseret News*에 게재됨, 1854년 11월 2일, 1쪽.
3. Mercy Fielding Thompso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7월 1일, 398쪽; 현대화된 구두법.
4.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9년 4월 4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이 편지에서 선지자가 수감된 지 5개월이라고 한 것은 리버티 감옥 및 인디펜던스와 리치몬드에서의 수감도 계산한 것이다.
5. 시드니 리그돈은 1838년 12월 1일에 형제들과 함께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나 1839년 1월 25일, 선지자가 이 편지를 쓰기 약 2개월 전에 시드니는 몸이 너무도 아팠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보석이 허가되었다. 계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시드니는 감옥을 벗어날 경우 자신의 신분이 걱정되었으므로, 2월 5일까지 감옥에 남아 있기로 했다.
6. *History of the Church*, 3:289~291;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교회에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9년 3월 20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이 서한의 일부는 이후 교리와 성약 121, 122편 및 123편에 포함되었다.
7. *History of the Church*, 3:291, 293; 현대화된 철자법; 단락 구분 변경. 교리와 성약에 출판하기 위해 선지자의 편지 및 군대의 구두법, 대문자 표기법 및 문법에 작은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교리와 성약 121, 122편 및 123편과 본 장에 있는 자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한국어에는 느낌표 사용의 차이만 있음. 영어에는 원문(편지)에 느낌표와 Thou, Thy(대문자) 및 towards를 사용했으나 교리와 성약에는 느낌표가 없고, thou, thy(소문자) 등을 사용했으며, towards 대신 toward를 사용했음-역자 주]
8. *History of the Church*, 3:296~298; 현대화된 철자법 및 구두법.
9. *History of the Church*, 3:300~301; 단락 구분 변경.
10. *History of the Church*, 3:328~329; 단락 구분 변경: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 1839년 11월, 7~8쪽.